

# “승무에서 발레까지 춤사위 펼쳐”

### ‘춤로의 여행’ 여는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21개 무용단이 5개월 동안 펼치는 ‘춤로의 여행 2012’가 4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한국전통, 한국창작, 발레, 현대무용, 퍼지컬 씨어터, 해외민족무용 등을 소극장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가 있다.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

이 대표는 “무용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작년에 9개 팀이 참여한 데 비해 올해는 21개 팀이 참여하는 등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전한다.

5개월 동안 매주 금·토·일 마다 펼쳐질 이번 공연은 21개 무용단 150여 명의 안무가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장르의 기성안무가 및 무용단의 총판인 ‘샐러드프리젠테이션’ >창단한지 5년 미만으로 참신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용단들이 펼치는 ‘뉴웨이브 안무가전’ > 한국전통춤의 오늘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전통 춤의 숲’ 등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창작무용단 댄스컴퍼니 리의 불교정신에 기반을 둔 창작무용 ‘箇舞(회무)’(5월 25~27일)를 비롯, 정어람무용단(7월 27~29일), 판댄스컴퍼니(8월 10~12일), 박덕상 타무천예술단(8월 17~19일) 등의 한국전통무용단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다수의 불교적인 작품을 창작해온 댄스컴퍼니 리는 ‘箇舞’ 공연에서 불교적인 색채를 주요 이미지로 명상춤과 무용치료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베트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소리와 울림은 관객을 깊은 명상 상태로 유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승무 공연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는 8월 29일까지 ‘춤로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무용공연을 펼친다.

### 불교적 명상춤 ‘회무’ 등 선보일터 전통안무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

을 엿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대표는 “이매방류, 한영숙류 등 류파별 승무가 소개되어 차별화된 예술성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극장이 지난 해 전통춤공작장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승무 등 우리 전통춤을 알리는 공연 기획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살풀이춤, 태평무, 장구춤, 검무 등의 한국전통무용과 스페인플라멩코 및 발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 3월 이 대표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한국춤예술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는 전통 안무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회원을 확보 한국춤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는 “전통춤 안무가들을 위한 협회 등이 없어 그동안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단법인 승인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통춤 안무가들의 고충을 함께 듣고 고민하며 전통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월파태음 스님의 ‘진여산실제암 [眞如山實際庵]’

## 모든 깨달음이 ‘한 마음’ 이네

山號眞如得 (산호진여득)  
庵名實際尋 (암명실제심)  
溪聲生妙曲 (계성생묘곡)  
松韻散清音 (송운산청음)  
佛燭明三覺 (불독명삼각)  
僧兼悟一心 (승겸오일심)  
壺中風景好 (호중풍경호)  
終日臥仙林 (종일臥仙林)

산을 부르니 진여가 얻어지고  
암자를 이름 하니 실체가 구해지네.  
계곡물 소리 묘한 곡조 만들고  
소나무 울림 맑은 음 흘뿌리네.  
부처님은 오직 깨달음 셋을 밝히셨는데  
스님은 겸하여 일심을 깨닫구나.  
명숙의 경치 좋아  
종일토록 신선 림에 누웠네.

월파태음(月波兌律; 1695~?)스님의 <월파집(月波集)> 서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며 그 시를 완상하면 말이 월파와 같아서 허탄하지 않다”라 했다. 월파(月波)란 하늘에 뜬 달이 비추는 고요한 밤, 그 부서지는 달빛에 비친 은색물결을 뜻하는데 맑은 바람과 상쾌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월파라는 이미지에 스님의 모습과 언행, 시문의 고졸함을 부친 것이다.

산 이름과 암자명이 진여요 실제니  
부를 때마다 진여와 실체가 구해진다고 했다. 부른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산과 암자에 기거하는 스님은 이미 진여자체고 실제 자체인 것이다. 진여와 실제의 오묘하고 맑은 경지는 계곡물소리와 솔바람소리로 형상화 됐다. 시체를 풀어놓은 재치가 돋보인다. 부처님은 오직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달음은 내용과 작용을 두루 원만하게 비추어 수행해 나가는 자각(自覺) 각타(覺他) 각행(覺行)원만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스님은 더 나아가 모든 깨달음이 곧 이 마음임을 깨달았다. 일심(一心)의 진여로 되돌린 선사의 예봉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하다.

“병속의 경치”는 호중천(壺中天), 즉 속세와는 다른 별천지인 신선의 세계이다. 스님은 깨달았고 게다가 경계는 신선림을 보내니 맛돌 맛돌 맛돌 [築菴確菴]인 셈이다. 그러나 종일토록 완상하며 자랑하고 싶을 수 밖에. 원법 스님(운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사리)



## ‘대자연속의 나’ 아크릴로 캔버스에

### 선스페이스, 이상기 작가展 4월 14일까지

대지가 약동하는 초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삼청동 스페이스선 갤러리는 이상기 작가를 2012 스페이스선 추천작가로 선정, 4월 14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이 작가는 ‘마음풍경 꽃비를 뿌리다’를 주제로 아크



보시를 상징한 작품 ‘꽃비를 뿌리다’ 53×45.5

릴 물감으로 그린 꽃비가 내리는 풍경 등 21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캔버스에 아크릴로 대자연과 대자연 속의 ‘나’를 풍부한 색감으로 담아냈다. 캔버스 속의 붓놀림은 자연이 소생하듯이 역동적으로 꿈틀댄다.

이 작가에게 꽃비를 뿌리는 것은 단순한 붓과 꽃의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우주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나누길 소망하는 작가의 뜻을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상기 작가는 불교의 선(禪)과 명상적인 사상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꽃비를 뿌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보시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공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널리 퍼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02)732-0732 이나은 기자

## 김경호 회장 사경 美 신학대에 봉안

### “고려전통사경 봉안된 일 이번이 처음”

한국의 전통사경이 미국 대학교에 봉안물로 봉안된 눈길을 끈다.

외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은 자신의 작품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4월 6일 클레어몬트 링컨 대학교에 기증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링컨대는 신학대학으로 신학과를 종교학과로 개편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자 한국 불상을 지난 해 12월 봉안한 바 있다.

김경호 회장은 “신학대에 한국 불상이 모셔지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불상의 봉안에 고려 전통사경이 선보인 일도 처음”이라며 “한국 현대사경사에 한 획을 긋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작품은 역대 사경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정치(精緻)하게 제작됐다. 표지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바탕으로 한 태극무궁당초문으로 장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호 회장은 4월 8일 LA에 있는 원명사에서 한국 전통사경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나은 기자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문품> (450cm×6cm, 글자크기 2~5mm)

## 명창 정정렬 추모음악회 열려

### 익산 심곡사서 4월 21일 공연 지역내 정기공연으로 자리매김



놀이 >최승희 명창 여는소리 >채순자 무용단 살풀이 등 다양한 예술공연이 펼쳐지며 가수 이승훈, 하은주, 더 베스트, 윤태규 등이 참여한다. 정정렬(1876~1938·사진) 명창은 19

세기 조선적인 판소리 시대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 태어나 오랜 수련을 통해 훗날 오명창의 하나로 꼽힌 세기의 명창이다.

하지만 정 명창은 소리꾼으로 대성하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인 ‘떡목’을 가지고 있었다. 떡목이란 고음부의 음역이 좋지 않아 자유로운 소리 표현이 잘 안되고 소리가 심하게 거친 목을 일컫는다. 정 명창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고장인 익산 미륵산 심곡사 등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견디며 소리에 매진했다.

이에 심곡사는 고장을 빛낸 국창 정정렬 선생을 추모하며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정정렬 명창 특목 기념 떡목 공연장’을 건립했다.

회평 스님은 “심곡사에서는 떡목공연장 개관을 기념하고자 한국국악협회 익산국악진흥원과 함께 올해를 시작으로 지역 내 정기 공연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063)855-2001 이나은 기자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뱀은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① 신구판/양장본/567쪽 ② 신구판/양장본/712쪽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